

쿠팡과 열흘간의 사투



김 승 호 의
시 선

김장을 위해 절임배추를 쿠팡으로 주문했다. 두박스를 주문했지만 예정된 날짜까지 배송이 안된다고 해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박스가 집으로 배달됐다. 업체의 잘못으로 한박스만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장 당일 저녁 늦게 도착해 어차피 쓰지도 못할 배추여서 반송을 요청했다.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업체에서 가져갈 생각을 안했다. 다시 반송을 요청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왔다. 며칠 더 기다렸다.

“차라리 내가 버려줄까” 했더니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또 기다렸다. 일주일째 절임배추는 집 문앞에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되겠다싶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자로 문의했다. AI인지도 모를 상담사가 배송업체와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감감무소식이다. 다시 문의했다. 또다른 AI인지 모를 상담사가 응대했다. 첫 상담사나 두번째 상담사 모두 기계적으로 ‘배송될때

열음팩이 있었느냐’, ‘열음팩과 함께 (서늘하게)보관하고 있냐’는 질문만 늘어났다.

이번엔 전화로 쿠팡에, 배송업체에 따졌다. 두 곳다 해결하겠다고 했다. 쿠팡은 자기들이 배송한 것이 아니니 해당 업체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다시 기다렸다. 9일째가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 쿠팡 고객센터에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고객님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자기들이 가져갈테니 기다려달라고 할땐 언제고….

화가나서 못버리겠다고 쿠팡에 다시 전화했다. 해당 배송업체와도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했다. 어느새 정(?)이 들었던 배추는 쿠팡, 배송업체와의 사투끝에 열흘만에 반송됐다.

쿠팡이 요즘 화두다. 발단은 3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물론 내 정보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털린 것도 화가 나는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쿠팡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다.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사태 한달이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사정기관 등 공직에 있다가 또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다 쿠팡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셀 수 없는데도 회사의 위기대응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데 일단 놀랐다.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상한답시고 내놓은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도 뜯어보면 가관이다. 1인당 5만원 꼴이라고 하지만 고객들이 주로 쓰는 쿠팡 상품 이용에는 고작 5000원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고객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늑장대능, 안일한 대응으로 뿌리가 통째로 흔들렸던 기업들의 사례는 우리나라 기업사에서 얼마든지 있다.

쿠팡은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이다. 가뜰이나 작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여 몸집만 커진 기업에 ‘유니콘’ 칭호를 붙이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특히 쿠팡을 이끌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벤처업계에서 성공 신화를 쓴 인물 중 한명이다. 잘 나갈땐 그랬다. 하지만 사람이나 기업이나 위기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 쿠팡은 유니콘기업도, 벤처기업 타이틀도 아깝게 됐다.

머리와 마음, 기업가정신 없이 장사만 잘해 몸만 비대해진 기업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냉철할 때가 됐다.

/bada@metroseoul.co.kr

희망은 오늘을 건너는 힘에서 온다



기지 수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2026년이 시작됐다. 새해를 맞는 인사가 예전처럼 가볍게 나오지는 않는 시대다. “올해는 작년보단 낫겠지”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분위기다.

지난 몇 해 동안 사회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계엄 사태, 그리고 이어진 경제의 불안, 반복되는 사고와 갈등은 일상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켰다.사회 곳곳에 쌓인 피로와 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앞으로 나아가자’ 보다는 ‘일단 버텨보자’에 가깝다. 빠른 변화보다 안정, 과감한 도전

보다 실수를 줄이는 선택이 늘었다. 모두가 조금씩 지쳐 있지만, 동시에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요란한 구호와 다짐 대신 작고 현실적인 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무조건적인 성장보다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큰 성공보다 일상의 안전과 신뢰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예측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다만, 조금은 덜 불안하고 대응가능한 환경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마도 2026년은 이런 소박한 바람들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만들 것이다. 희망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무사히 건너는 힘에서 비롯된다.

기자의 역할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올해는 자극적이고 피로도가 쌓이는 기사보다 따뜻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를 바란다. 갈등과 오해를 키우기보다 이해의 여지를 남기는 기록, 불안을 부추기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은 모든 것이 단번에 회복되는 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숨을 고르고, 속도를 조절하며,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해가 될 거라 믿는다. 희망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다시 사회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작은 변화의 조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겠다 다짐해본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1월 2일 (음 11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뒤늦게 조상 땅 상수를 받으니 축복이자 복덕이다. 48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60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72년생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84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으니.



37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49년생 부모가 물려 준데도 기업을 운영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61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73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85년생 닭띠와 안쟁하지 않도록.



38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 50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62년생 연장근무로 효과를. 74년생 남의 탓이나 사람 타령은 그만하는 것이. 86년생 나이가 있으니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39년생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51년생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할것. 63년생 형제끼리 누가 잘 하나를 따지면 무엇을 하겠는가. 75년생 꿈 같은 아내나 여우 같은 마누라를 비교말자. 87년생 건강하게 사는 게 오복의 하나.



40년생 목언 기도를 해보라 일이 해결된다. 52년생 어느 곳이든 상술도 능력이다. 64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일찍 나서라. 76년생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이다. 88년생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괴심한 며느리만 있다.



41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주식 투자도 운수대길이다. 53년생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65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77년생 조직에서는 상사의 뜻을 따르는 게 편리. 89년생 치매 증상이 나이 인풍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건강유의를.



42년생 말의 흉수 시절이니 조심은 하자. 54년생 결혼이 필수 시대였으나. 66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사. 78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90년생 재테크로 부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한다.



43년생 요구가 많은 시어머니로 골치아 아를 것. 55년생 동료라 이기적이긴 하나 영업력은 우수. 67년생 말은 일을 매듭짓는다. 79년생 부모님이 재혼에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91년생 상대에게 위협을 받으려는 태도는 미움을 산다.



44년생 젊은 날 미모가 있었으나 인덕이 박하다. 56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소라진다. 68년생 서두르는 결혼이 이혼을 부른다. 80년생 로또에 당첨대려면 일단 복권을 사야. 92년생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라.



45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나 재물과 연관된다. 57년생 다른 이성에 눈 돌리지 않도록. 69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등해도 고만하지 말자. 81년생 역마의 기운이니 영업활동 기회가 온다. 93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린듯 피곤을 가져온다.



46년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니 사장님 얘기로 썩지 마라. 58년생 의사소통으로 일을 해결해야. 70년생 경청하면 일이 해결된다. 82년생 화를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보라. 94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



47년생 늙지는 않았으나 힘들다. 59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71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일 수도. 83년생 구습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서이다. 95년생 미워해서 헤어진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김상회의四季

병오 육갑

64갑자 중 병오(丙午)은 마흔 세번 째 해다. 六甲의 물상적으로는 붉은 말이라 하여 火의 天干이 지지의 火와 만나니 기운과 동력이 넘쳐서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감정적, 즉흥적으로 흐름을 위험성이 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火이니 한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힘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적토마의 기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수가 방향을 잘 잡고 제어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써버린다. 이를 에너지 작동방식으로 설명해보자면, 丙의 성격은 한낮의 뜨거운 열인데 그 열이 향하는 방향은 확실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열이 한 방향이 아니라 360도 모든 방향으로 향해있기 때문에, 따라서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어디로 써야 할지를 몰라서 방향성이 빠진 경우이다. 이럴 때는 멘토가 중요하다.

적토마에게는 그 적토마에게 걸맞은 장수가 필요함이다. 병오년은 납음(納音)으로는 천하수(天河水)가 되는데, 천하수는 납음의 물상으로 볼 때 천지사방에 물방울이 흩뿌리고 은하수 아래로 방울방울 쏟아지며 푸른 하늘에서 가느다랗게 날아드는 천상의 비와 이슬이라고 본다. 이 천상의 물과 이슬은 만물을 발생하는데 그 만물이 의지하지 않음이 없다 라고 옛 문서에는 설명한다. 이 천하수의 납음에 속하는 것이 병오와 정미가 된다. 납음(納音)이란 육십갑자를 궁·상·각·차·우라는 고유의 음운이론을 접목한 것인데, 육십갑자를 이렇게 오음에 분배하여 오행적 특성을 천하수니 장류수니 하는 상징적 물상으로 표시한다. 천지자연의 에너지와 원리를 반영하여 실사화면 기호를 육십갑자 음양오행과 소리의 음운으로 응용하여 운명을 큰 줄기로 판단하는데, 소리 역시 우주자연의 원리가 투영된 것으로, 음양오행론에 또 하나의 변수를 적용시킨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4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5						1
				4			5	
	2				5			4
		3		5				7
			3		9			
	6			8		1		
9			5					1
		2			1			
5					4			6

2		3		8				9
					3			
		4	2			5		3
	2					6		
8								1
		1					5	
3		8			6	1		
			7					
7				4		2		6

9	6	7	1	8	2	8	1	9
1	9	8	1	7	6	2	8	9
2	1	9	8	9	7	1	2	6
9	8	1	7	8	1	6	9	2
8	7	9	6	2	8	1	9	1
6	1	2	9	1	8	8	7	7
7	9	6	9	1	8	1	2	8
8	9	2	1	7	9	6	1	1
1	2	1	8	6	9	7	7	8

9	8	2	1	7	8	9	6	1
7	6	8	8	9	1	2	1	9
9	1	1	9	2	6	8	7	8
1	9	8	2	6	9	1	8	7
1	7	6	2	8	9	1	9	1
1	8	9	7	1	8	6	2	9
8	9	9	6	1	2	7	8	1
8	2	7	8	9	1	1	9	6
6	1	1	9	8	7	8	9	2